

어려운 이들을 위한 메시지

박영숙(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총재)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어려운 이들이 많다. IMF 시대로 들어서면서 술한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엮힌 데 덮치는 격으로 기상이 변으로 인한 수해 등 재난마저 겪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삶의 용기를 접고 자살의 길을 택한 가정들의 소식이 들려 오며, 심지어는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한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문득, 그 동안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들을 위해 같이 일하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화 고난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이희호 여사께서 영어 생활을 하던 남편 김대중 선생께 보냈던 편지들을 떠올렸다.

1980년 내란음모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사는 어떻게든 남편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날마다 편지를 써보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그 당시 이 여사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힘과 용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런 뜻을 전해 들으신 영부인께서는 잠깐 주저하시기도 했지만, 가장 힘겨웠던 상황이 담긴 편지 묶음을 넘겨주셨다.

1980년 이전에도 1972년의 납치 사건, 1976년의 3·1사건 연루 등 김대중 선생은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1980년 사형 선고를 받은 때였다. 9월 11일, 사형이 구형되고 9월 17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항고를 했지만 11월 3일 고등법원에서 역시 사형이 구형되었다. 이 여사가 제일 처음 편지를 쓴 11월 21일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많은 이들은 형 확정과 더불어 바로 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편지 왕래를 허락한 것은 사형 집행을 앞둔 일종의 선심이 아닌가, 라는 추측도 나왔다. 비록 편지가 허락되었다고는 하지만 혹시 차압될까 봐 가능한

한 말을 골라 써야 했고, 은유와 성서 구절로 대신해야 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절규와도 같은 기도임은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무기로 형이 감형된 후에도 이 여사는 매일 편지를 보낸다. 어두침하고 스산한 감옥에서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김대중 선생이 아끼던 애견들 이야기, 화초 이야기는 물론,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소식과 측근들의 생활 모습도 낱낱이 재현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사는 국내외의 정세와 사회 및 교육의 문제들도 알려줌으로써, 밀폐된 장소에 갇혀 있는 남편이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다. 한 달에 한번 면회와 편지가 허락되는 상황에서 처음 책들을 고르는 것은 여사의 몫이었다. 차입한 책들의 목록을 보면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 준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간절하고 애절한 편지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오늘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남편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아내, 이 어려운 가운데 살림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주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Humal

어려운 이들을 위한 메시지

박 영 숙 (사)사랑의 친구들 총재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어려운 이들이 많다. IMF 시대로 들어서면서 술한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들도 생겼다. 그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결식아동은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헤아릴 수 없는 가정파탄이 이어지고 있다. 삶의 용기를 접고 자살의 길을 택한 가장들의 소식이 들려오며, 심지어는 한 가족이 자살했다는 소식도 잇을 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안타깝고 가슴아픈 상황을 보고 들으며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희호 여사께서는 (사)사랑의 친구들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펴기에 이르렀다. 어려운 이들을 고통을 덜어보자는 데서였다. 그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던 함께 일하는 몇 사람이 문득 떠올린 것은 바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선생에게 보낸 이희호 여사의 편지 묶음이었다.

1980년 내란음모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 형이 집행될 지 모르는,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사는 어떻게든 남편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써보냈다. 한지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애태우고 있는 이들이 그 당시 이 여사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힘과 용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런 뜻을 전해들으신 이 여사께서는 잠깐 주저하셨지만, 가장 절박했던 당시의 편지 한 묶음을 넘겨주셨다.

그것은 1980년 11월 21일에서 1981년 12월 31일까지의 서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0년 이전에도 1972년의 납치살해기도, 1976년의 민주구국선언 사건 연루 투옥 등 여러 형태의 고난을 겪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는 1980년 사형선고를 받은 때였다. 9월 11일 사형이 구형되고 이어 9월 17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항고를 했지만 11월 3일 고등법원에서 역시 사형이 구형되었다. 이 여사가 영어의 몸이 된 남편에게 처음 편지를 쓴 11월 21일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은 형 확정과 더불어 바로 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고 있던 서신왕래를 하게 한 것도 사형집행을 하기 전의 일종의 선심 쓰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했을 정도였다.

이 여사께서 매일 띄운 한 장 한 장의 지면을 메운 내용은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격려와 건강 배려, 가족 소식, 측근들의 근황,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막내아들의 심리상태, 남편이 아끼던 애견과 마당의 화초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마주앉아 이야기하듯 하는 것이다. 이 여사의 서신에는 사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사는 국내외의 정세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남편이 사리 판단에서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배려했다. 한 달에 한 번의 면회와 한 번의 서신 작성만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남편이 읽을 책을 고르는 것도 이 여사의 몫이었다. 차입한 책들의 목록을 보면 또 다른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 서신에 쓰여진 단어들은 편지를 주고받은 두 분에게는 우리들이 읽어 낼 수 있는 의미 이상의 것들이었다. 까닭은 당국이 혹시나 편지를 차압할까 두려워서 말을 골라 써야 했고 은유와 성서구절로 대신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절규와도 같은 간절한 기도들로 이어지고 있다.

서신을 읽는 이들은 감동한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신의 각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두 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남편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아내,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주부,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어려운 오늘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사랑의 친구들은 이 책을 펴낸다.

1998년 12월